

조현범의 ‘공간철학’… 미래 모빌리티 주도 기업혁신 이끈다

한국엔컴퍼니그룹 ‘공간 해석’

개방적 업무공간, 생각 방식 바뀌
2014년 ‘한국테크노돔’ 첫 신호탄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센터 등 갖춰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의 말과 같이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크다. 이는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성원이 어느 공간에 머무는지에 따라 조직문화, 창의성, 소통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엔컴퍼니그룹이 ‘공간’을 가장 잘 해석하고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엔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은 ‘개방적인 업무 공간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기업문화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더한 첨단 인프라를 통해 하이테크 혁신과 기업문화 체질 개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31일 한국엔컴퍼니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4년 R&D 역량 강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Hankook Technodome)’ 건설을 시작으로 미래 기술 혁신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테크노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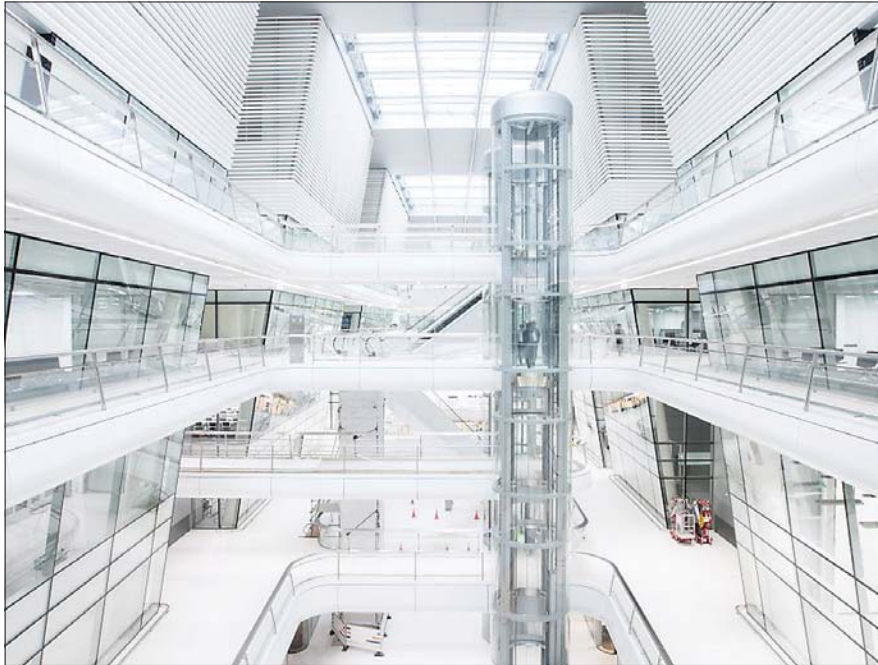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

시각 연결성 콘셉트 ‘테크노플렉스’ ‘프로액티브 컬처’ 발현하게 설계
한국테크노링, 축구장 125개 크기
250km 슈퍼카 타이어 성능테스트

하이테크 건축의 대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가 설립한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Partners)’로부터 설계를 받은 국내 첫 건축물이다.

조현범 회장은 한국테크노돔 건설과 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포스터 앤 파트너스 관계자들에게 건물의 콘셉트를 비롯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테크노돔’은 실제 환경에서의 가상 테스트 주행을 진행하는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테크노돔 내부 전경.

타이어 소음 테스트 실험실 등 최첨단 연구 시설을 기반으로 친환경 신소재 및 원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엔 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공간에 대한 조현범 회장의 지론은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에서 더욱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2020년 완공된 ‘테크노플렉스’는 노먼 포스터와 함께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미래 비전 구상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담당

하는 글로벌 컨트롤 타워이다. ‘시각적 연결성’을 콘셉트로 개방적인 업무 공간을 조성해 구성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 혁신 주체가 되는 고유 기업문화 ‘프로액티브 컬처’를 발현하도록 설계했다.

‘테크노플렉스’는 거대한 아트트리움(Atrium)을 중심으로 층별 개방성을 극대화하여 자율적 소통과 협업,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업무 공간은 사원으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율좌석제로 운영하고 자유로

운 보고 체계를 갖추는 등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여 유연하게 일하는 업무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또 본사 내부 곳곳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하여 구성원 스스로 수평적인 토론과 회의를 통해 테크놀로지 혁신의 밑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테크노플렉스’가 전략을 ‘한국테크노돔’이 기술 혁신을 그려낸다면 이를 실험하고 증명하는 곳은 바로 지난 2022년 완공된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Hankook Technoring)’이라고 할 수 있다.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부지에 들어선 한국테크노링은 최고 속도 시속 250km 이상의 고속 주행이 가능해 전기차, 슈퍼카용 타이어와 같이 혁신적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앞으로도 조현범 회장의 공간론(論)을 바탕으로 완성된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해 나갈 원천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수평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프로액티브 컬처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순차입금 ‘제로’… 업계최고 운영역량 확보”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
“무엇보다 ‘본원적 경쟁력’ 강화 중요
AI 활용, 보유사업 프로세스혁신”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가 임직원들과 직접 만나 회사의 경영 현황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소통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과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31일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구성원이 묻고, 리더가 답하다’ 행사에서 구성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최근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이천포럼 CEO 스피치 세션에서 쏟아진 관심과 추가 질문에 화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대표는 “앞으로 순차입금을 제로 수준으로 낮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 역량을 갖추겠다”며 “보유 중인 사업 영역에서 흔들림 없는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차입금은 기업의 총 차입금에서 현금 및 예금 등을 뺀 수치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또한 그는 AI를 적극 활용해 기존 사업 모델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SK그룹이 최근 강조해온 ‘일하는 방식의 AI 전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방향성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제도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은 저 혼자 할 수 없다”며 “구성원 모두가 회사를 믿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왼쪽부터 류두형 (주)한화·글로벌 대표이사, 김종서 한화엔진 대표이사, 라피 발타 한화파워시스템 대표이사, 최석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리조트 부문 대표이사, 김경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 대표이사 내정자.

/한화그룹

(주)한화·글로벌 대표이사에 류두형 내정

한화그룹, 4개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
엔진-김종서, 파워시스템-라피 발타

한화그룹은 (주)한화·글로벌,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리조트부문·에스테이트부문) 등 4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한화·글로벌 신임 대표이사에는 류두형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이 내정됐다. 그는 한화에너지, 한화첨단소재, 한화모멘텀 등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전문경영인으로, 제조·에너지 분야 글로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화·글로벌의 사업 전략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엔진은 김종서 전 한화토탈 대표가 맡는다. 김 내정자는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을 맡아 수석석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과 액화천연가스(LNG) 선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끈 바 있다. 글로벌 선박 수요 확대에 맞춰 엔진 제조 본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다각화를 주도할 책임자로 평가된다.

한화파워시스템 대표이사에는 라피

발타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선임될 예정이다. 그는 글로벌 엔진 및 가스터빈 업계에서 35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로 GE와 항공우주 제조업체 프리시즌 캐스트파트스(Precision Castparts)를 거쳐 지난해 한화파워시스템에 합류했다. 풍부한 글로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파워시스템의 압축기, 가스터빈 등 에너지 장비의 해외시장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리조트 부문은 최석진 대표이사가, 에스테이트 부문은 김경수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최 대표 내정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레저지원그룹장과 미래전략실장을 지냈다. 호텔·리조트 사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표 내정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발사업부장과 회원사업부장, 아쿠아플라넷 대표를 거쳐 현재 에스테이트부문을 맡고 있다. 종합 부동산 시설관리 사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할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

태양광 사업부지 사전 공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 위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826번지
- 발전소 명칭

발전소명	사업주명
직천1호	최선미

- 발전소 면적: 2,350㎡
- 발전소 내용:
 - 설비용량: 307.34kw*1개소
 - 사업개시예정일: 25년 11월
 - 사업운영기간: 2025년 11월 ~ 2045년 10월 (예정)
-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최선미
- 의견서 제출기한: 2025년 8월 30일 ~ 2025년 9월 12일
- 의견서 제출방법: 전화 063-255-2581, 팩스 063-251-2581
- e-mail: ok1300@daum.net